



연간 보고서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7년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형제자매 여러분,

오스트리아 빈대교구장 크리스토프 쇤보른 추기경께서는 예술가 앙드레 헬러의 말을 즐겨 인용하십니다. 앙드레 헬러는 '나치 독일에 의한 오스트리아 병합'이 80년 되는 해에 한 연설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는 사랑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역설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박애 정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결정적인

한걸음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를 위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미약하게나마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자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유가 있다면 말이지요.

ACN의 2017년 연간 보고서를 보시면 지난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후원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다시 한번 사랑과 박애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5,300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며 후원자 여러분과 ACN 사이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성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고통받는 형제자매들로 이어지는 '다리'를 보다 넓히고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의 매개체이자 전달자에 불과한 저희 ACN은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이 사랑과 함께 해 주신 모든 기도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여러분의 사랑은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 건설 지원 1,212건

성당, 대성당, 수도원, 신학교 등을 짓는 데 후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원 지역은 주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곳이었으며 성전 건립이 전체 건설 지원 사업의 1/3을 차지했습니다.

♥ 미사 예물 1,504,105차례

전 세계 사제 10명 가운데 1명(총 40,38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15,440명)와 아시아(10,748명)의 사제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지향이 담긴 미사가 21초마다 세계 곳곳에서 봉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학생 13,643명 지원

지난 20년 간의 신학생 양성 지원 사업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16년에는 전 세계 11명 중 1명이 지원을 받았다면, 2017년은 9명 중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5,486명), 남미(2,919명), 아시아(2,101명)의 신학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수녀 12,801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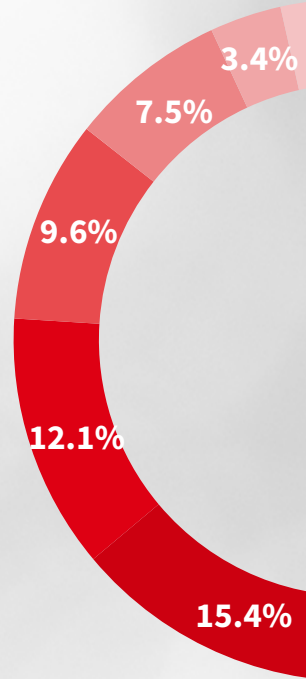
전 세계 수녀 52명 중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의 62명 중 1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녀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운송 수단 지원 1,12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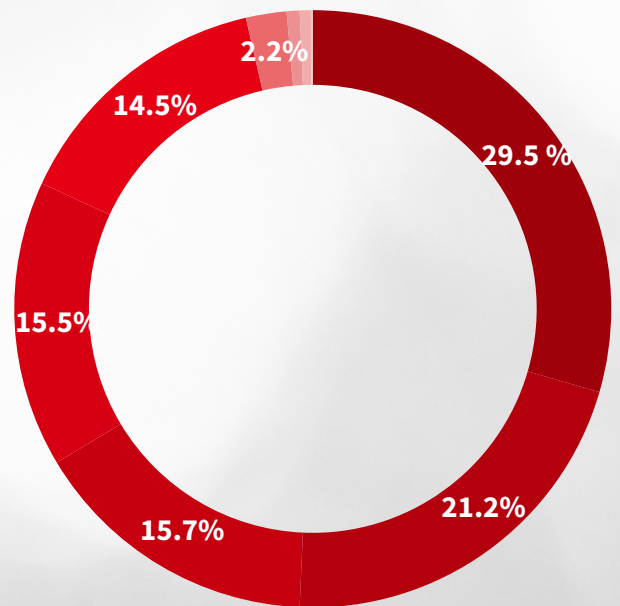
사목 활동을 위한 자동차 424대, 오토바이 257대, 자전거 429대, 트럭 4대, 버스 3대, 배 3척을 지원했습니다. 자동차 지원은 아프리카와 동유럽이 많았으며 자전거 지원은 대개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이었습니다.

지원 사업 별 예산 비율

- 건설 지원 32.8%
- 난민 지원과 긴급 지원 15.7%
- 미사 예물 15.4%
- 사제와 수도자 양성 12.1%
- 평신도 교육 9.6%
- 사목 활동을 위한 운송 수단 7.5%
- 수녀 지원 3.4%
- 종교 서적과 출판 지원 1.9%
- 가톨릭 미디어 지원 1.6%



지역 별 지원 사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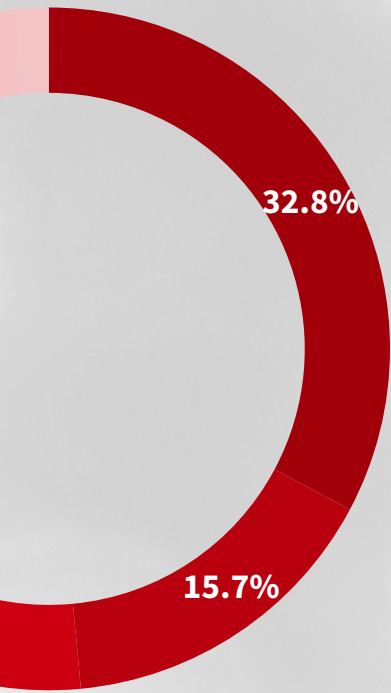


2017년 한 해 동안 총 5,357건의 사업 지원

결과적으로 2016년 전체 지원 사업 수보다 54건 증가하였지만, ACN의 도움을 요청한 수많은 사업 중 1/4인 1,933건의 지원을 반려해야만 했습니다.

ACN은 '아랍의 봄'이 발생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7500만 유로(약 988억 원)를 위기에 처한 중동 지역에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만 1730만 유로(약 228억 원)를 지원했습니다. 2018년인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중동 지원 사업에 책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왔듯이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인 32.8%를 건설 지원 사업이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난민 구호와 긴급 지원, 사제와 수도자 양성 지원이 뒤를 이었으며 평신도와 교리교사 37,797명의 지원 사업도 총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 전 세계 **23개국**에
모금 활동을 위한 지부 운영
- ◆ 후원자 **36만 8천 명** 이상
- ◆ 기부, 유산 증여 등을 통한 수입
124,057,414유로(약 **1635억 원**)
- ◆ 190만 유로(약 **25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 2018년 예산으로 이월
- ◆ 전 세계 **149개국**의 파트너들과 사업 협력
- ◆ 2017년 지원 사업 **5,357개** 승인
- ◆ 전체 예산의 **82.5%**가 사목 활동과 연계

지난해 전 세계에서 7,500건 이상의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CN은 후원자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신 사랑으로 총 1억 2210만 유로(약 1609억 원)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82.5%인 1억 70만 유로(약 1327억 원)를 사목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 지원(84%), 정보 및 미디어 활동, 영성 활동 등(16%)에 사용했습니다.

ACN의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여느 재단이나 단체가 그렇듯 모금, 관리, 홍보 비용 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 최대한의 후원금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 아프리카 29.5%
- 중동 21.2%
- 아시아 15.7%
- 남미 15.5%
- 중유럽 및 동유럽 14.5%
- 서유럽 2.2%
- 국제적 0.7%
- 오세아니아 0.6%
- 북미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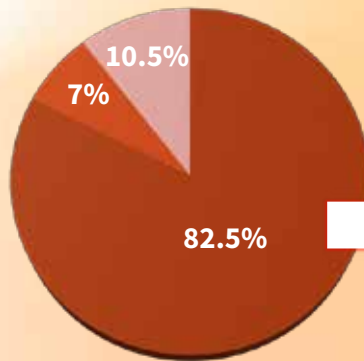
그 결과 ACN은 2017년 전 세계 149개국의 사업 5,357건에 8460만 유로(약 1115억 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국제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 알리고 신앙을 증언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출간하고 정치 채널을 통해 신앙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등이 모든 활동에 1610만 유로(약 212억 원)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간 보고서는 각 국가 지부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KPMG로부터 검토받았음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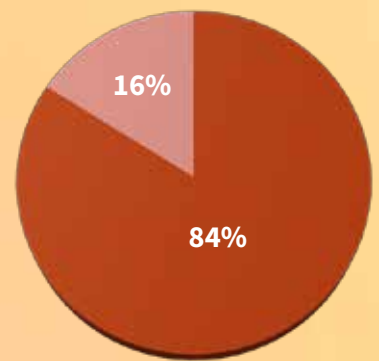
전체 예산 중 사용 비율

- 사업 활동 연계 82.5%
- 운영(관리) 7%
- 모금 및 홍보 활동 10.5%



사업 활동 연계 지출 비율

- 사업 지원 84%
- 복음화, 정보, 지지 활동 16%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태 16,15)

ACN은 2017년 이라크와 시리아에 각각 930만 유로(약 123억 원)와 580만 유로(약 77억 원)를 지원했습니다. 이라크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니네베 평원 재건 사업이 차지했는데 지원 금액이 714만 유로(약 94억 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다에시(IS)’의 공격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집과 마을을 재건하는 것으로, 2018년 봄을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그리스도인 난민들이 니네베 평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는 수녀 지원, 미사 예물, 국내 실향민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만 명, 팔레스타인은 50만 명에 이르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피란길에 올라 난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제외하면 인도(약 77억 원), 우크라이나(약 63억 원), 브라질(약 51억 원), 콩고민주공화국(약 45억 원) 순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ACN의 지원 사업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적대하는 환경일수록 도움이 손길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의 교회는 정말로 세계 교회의 지지와 후원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500~1,000명의 새 사제가 탄생하며 신학생도 현재 15,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교회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곳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곳이며, 지역별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 외에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도 ACN의 주요 지원 국가이며 ‘가톨릭 대륙’인 남미에서도 교리 교육 및 영성 교육을 위한 지원 등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